"전남 농수산물 정기 배송서비스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구독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발간

"비대면 소비 맞춤형 서비스 도입…영세농·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가 지속 성장함에 따라 지역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활용한 '전남형 구독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정기 배송서비스로 전달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정책연구로 '구독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현철 연구기획경영실장은 "비교우위를 지닌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정기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영세한 지역농가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력이 높은 30~40대의 구독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및 편의성 중심으로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량과 소비 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기 배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농어가의 판로 개척과 소득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남도는 소상공인 및 농어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익창출 지원을 목표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70개 이상의 구독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남도장터 내 '구독경제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등 19개 시·군,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음식료품을 비롯해 소비생활 전반으로 구독경제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타 지역 대비 농수축산분야의 비교우위를 지닌 전남은 지역 대표 특산물 중심의 구독상품 개발, 가공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다양화,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전문인력 양성 및 연관업체 육성 등 단계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남형 구독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로 ▲서비스 안정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성공적인 사업모델화 및 고령화비율이 높은 타 지자체로 확산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가칭)전남사랑 구독서비스' 제공 및 기부자와의 지속적 관계 형성 등을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치권역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착공 13일 광주 북구 오치주공1단지에서 열린 오치권역 복합 생활SOC 시설인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착공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문인 북구청장 등 내외빈들이 발파 버튼을 누른후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 트렌드' 매달 발간

도시주택연구소, 국가 통계자료 활용 주거 동향·현상 조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 부설 연구소인 도시주택연구소는 광주시민의 주거 생활 동향 및 현상을 주제로 한 '주거복지 트렌드' 보고서를 매달 주기적으로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가 및 지자체 통계와 관련 자료를 활용해 광주시민의 주거 생활 동향 및 다양한 주거 요구와 변화 현상에 중점을 두고 발간될 예정이며, 지난달 처음으로 발간됐다.

'1월 주거복지 트렌드'는 광주시민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자가 보유의식(내 집을 꼭 소유하고 싶다는 의식) 차이를 다뤄 주목을 받았다. 거주형태는 자가와 임대 가구(민간임대·공공임대)로 나누어 각각 비교했다.

분석결과 광주 무주택 임대 가구(73%)의 자가 보유의식 수준은 자가 가구(95.8%) 의식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임대 가구 중에서도 공공임대(62.9%)의 자가보유의식 수준이 민간임대(76.3%) 의식 수준보다 더 낮았다. 도시주택연구소는 무주택 임대 가구는 잠재 주택 수요자이면서 미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이번 보고서가 주택 수요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행할 2월 주거복지트렌드에서는 임대 가구 중에서도 1인 가구, 30대 미만 가구, 공공임대 가구, 기초 수급가구, 저소득가구의 낮은 자가보유의식에 대한 관련 요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도시주택연구소에서 광주의 주거복지트렌드를 연구해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주거 생활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트렌드' 보고서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자료실-도시정책브리핑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시주택연구소는 주택, 도시, 주거정책, 도시재생 등 현안 과제 연구, 스마트 성장기반 구축, 주거복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 월 20만원

2017년 이후 출생…市, 23일부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3월 말에 지급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기관장 행정 성과 등 19개 평가

광주시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306곳을 대상으로 기관장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 평가 등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시민 중심,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 창구'를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3천여종 정보를 통합한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등 고충 민원 처리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등 국민권익위로부터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청년 문화생활·자기발전 지원

문화복지카드 20만원

19~28세 대상…28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발전 기회 지원을 위한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5년~2004년도 출생자) 청년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 연령을 2세 하향,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에게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과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해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시 지역 거주자는 광주은행, 군 지역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20만원은 발급된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전남도내에서 연말까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 활동 등 문화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

사회재난 사망 등 4개 항목 추가

전남도가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운 도민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 4개 항목이다. 기존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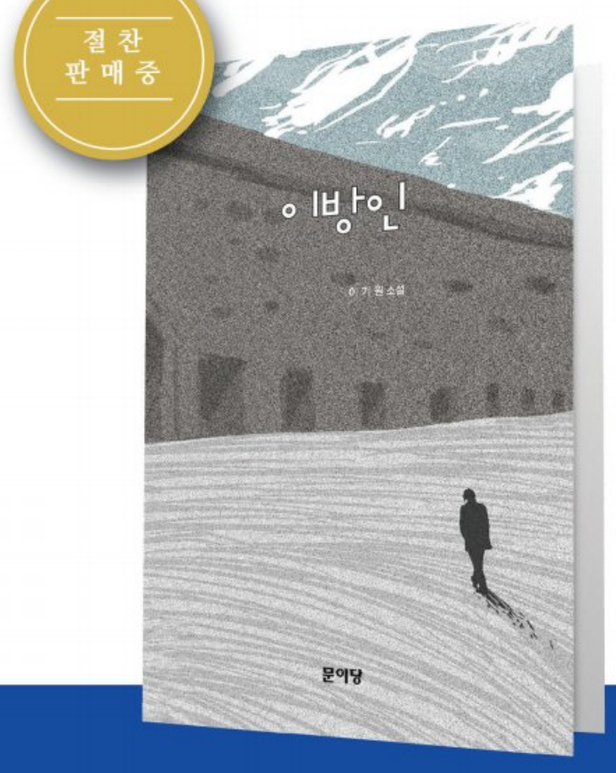
전남도는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기존 보험 항목에 사회재난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와 각 보험사에 보장 항목 문제점을 건의했다.

보험사는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는 경우 관련 보장항목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유형의 재난 사고에 대비해 포괄적 사회재난이 보장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026명의 도민에게 5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 점 판 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